

非獨立 字素의 유형과 원인 분석*

— 『說文解字』 540 부수를 위주로

진광호**

【목 차】

1. 序言
2. 非獨立 字素의 유형
 - 2.1 不成文 字素
 - 2.2 獨體 字素
 - 2.3 合體 字素
 - 2.4 變異 字素
3. 非獨立 字素의 발생 원인
4. 結言

【초록】

기본적으로 形·음·의 삼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문자라 칭한다. 이러한 문자는 보통 독립성을 갖고 단독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모든 문자가 다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자는 독립적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문자와 결합하여 字素를 이루어야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를 ‘비독립 자소’라 부른다. 본 논문은 不成文 字素를 포함해『說文解字』 540개 부수를 대상으로 문자의 단독 사용 여부에 따라 비독립 자소를 구별해 내었고, 이를 다시 字形에 따라 독체자소, 합체자소, 그리고 변이자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독립 자소에서 비독립 자소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비독립 자소가 어떠한 형태와 유형으로 대체되었는지,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 ‘不成文’, ‘通假’, ‘同義 문자’, ‘後起字’, ‘字形의 변형’, ‘釋形之誤’, ‘기타’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내었다. 아울러 이들의 문자로서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키워드】 非獨立, 字素, 文, 字, 不成文, 獨體, 合體

* 본 논문은 2017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조성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학부 중국어 전공 교수 (jkh@bufs.ac.kr)

1. 序言

화학에는 元素라는 말이 있고, 어음학에서는 音素, 어휘학에는 詞素(形態素)라는 용어가 있다. 이 모두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문자학에도 字素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역시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한 문자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작은 단위’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학에서 字素의 개념은 音素나 詞素와는 달리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계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앞에 언급한 ‘가장 작은 단위’, 즉 ‘최소 단위’를 어떠한 경계에서 볼 것인가? 어떠한 기능과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 字素의 개념을 이용해 가장 먼저 문자를 분석한 사람이 바로 東漢의 許慎이다. 그는 『說文解字』의 9,353자를 대상으로 540개의 부수로 분류하였고, 회의와 형성문자를 “從某,從某”, “從某,某聲” 등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540개의 부수와 “從某”는 바로 자소의 개념으로 문자 분석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에 이 자소의 개념은 보다 구체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구조적 측면에서 필획자소, 근원자소 파생자소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¹⁾, 기능적 측면에서는 표의자소(형부), 표음자소(성부)로 나누기도 한다. 또 문자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자 자소와 비문자 자소로 나눌 수도 있다. 자소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 자소와 비독립 자소로 분류하는 등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다양한 자소 중 비문자(不成文) 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음·의를 갖춘 하나의 문자이다. 그러나 문자로서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자소들은 문자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를 ‘비독립 자소’라 부른다. 예로, ‘ㄱ’(면), 糸(떡), 彳(척) 등은 하나의 문자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비독립 자소의 단독 사용 여부’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접근해 보았다. 하나는 문자가 造字될 때에는 독립적 이었을 것이나 후대의 문헌²⁾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문헌에는 독립 자소로 쓰인 예가 드물게 보이다가 후대로 오면서 점차 사용되지 않으면서 비독립 자소로 변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지? 이 비독립 자소는 어떠한 형태로 대체되었는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또 이를 하나의 완전한 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說文解字』의 540개 부수를 대상으로 하여 비독립 자소를 가려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1) 박추현은 構形字素를 筆劃字素, 根源字素, 派生字素, 形體字素, 變異字素 5가지로 분류하였다. 『漢字字素論』,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2) 中華學術院 『中文大辭典』의 어휘 수록 여부를 주된 참고로 하였다.

2. 非獨立 字素의 유형

木, 日, 水, 火, 石자 등은 다른 문자와 어울려 회의나 형성문자를 구성하는 字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독립 자소이다. 그러나 일부는 합체자를 구성하는 자소로만 사용되고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독립 자소’라 칭한다. 비독립 자소는 ‘不成文자소’, ‘독체자소’, ‘합체자소’, ‘변이자소’의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2.1 不成文 字素

不成文이란 문자의 삼요소인 형·음·의 중 형태와 상징하는 의미는 갖고 있으나, 읽을 수 있는 독음을 갖지 못하고 圖畫나 符號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문자에는 이르지 못하고 주로 합체상형이나 합체지사를 구성하는 자소로만 작용하므로 ‘非文字 자소’라 부르기도 한다.

2.1.1 圖畫

예로,

『說文·肉部』“胃, 穀府也. 從肉, 象形.”

胃는 동물의 위장(穀府)을 뜻하는 문자로 아래 從肉의 肉(月)은 신체 부위를 뜻하며, 현재 해서에서 田의 모양을 하고 있는 윗부분은 위장 O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 十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형태와 의미는 갖고 있으나 읽을 수 있는 독음이 없는 不成文의 도화이며,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비독립 자소이다.

『說文·皿部』“血, 祭所薦牲血也. 從皿, 一, 象血形.”

血은 그릇(皿)에 제단에 바치는 犧牲의 피(-)를 담은 모습이다. 독립 자소인 皿과 비문자의 不成文 字素가 더해진 합체상형의 문자이다.

『說文·木部』“果, 木實也. 從木, 象果形, 在木之上.”

果는 나무에 열매가 매달린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해서체에서 田의 모습은 나무에 열린 둥근 열매를 그린 것으로 독립성이 없는 不成文 字素이다.

『說文·日部』“旦, 明也. 從日見一上. 一, 地也.”

旦은 지면이나 혹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것으로 아래의 一은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그린 것으로 역시 단독으로는 의미를 쓸 수 없는 不成文 字素이다.

『說文·大部』“夫，丈夫也。從大一。一以象簪。周制八寸爲尺，十尺爲丈，人長八尺，故曰丈夫。”

夫는 사람이 정면으로 서있는 모습을 그린 大와 머리를 틀어 비녀(一)로 묶어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비녀를 나타내는 一은 문자가 아닌 不成文 字素이다.

2.1.2 符號

『說文·牛部』“牟，牛鳴也。從牛。厶，象其聲。气從口出。”

牟는 소가 울어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배출되는 모습을 그린 합체지사의 문자이다. 厶은 불성문으로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부호로 표시한 것이다.

『說文·刀部』“刃，刀鑿也。象刀有刃之形。”

刃은 칼 위에 번쩍이는 칼날을 하나의 점으로 찍은 형태이다. 빛은 그림으로 그려 나타낼 수가 없는 추상적 대상이므로 비문자의 점으로 표현하였다. 점은 독음을 갖고 있지 못한 不成文의 字素이다.

『說文·木部』“本，木下曰本，從木從丁。”

“末，木上曰末。從木從上。”

本과 末은 나무의 뿌리부분과 끝부분임을 하나의 필획 一로 표시한 합체지사의 문자이다. 역시 一은 문자가 아닌 위치를 나타내는 不成文 字素이다.

『說文·大部』“亦，人之臂亦也。從大，象兩亦之形。”

亦은 사람을 나타내는 大와 양 겨드랑이가 있는 부위를 두개의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문자는 지금은 후기 형성자인 腋자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 겨드랑이의 위치를 나타내는 두 점은 추상적인 부호로 不成文 字素이다.

2.1.3 飾筆³⁾

식필은 의미나 독음을 수반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문자의 정식 요소는 아니다. 단 자형의 변천과정에서 자형의 유사함을 피하기 위해서나 필사자의 착오, 혹은 필획이 너무 적은 문자에 장식용으로 보태어진 필획을 말한다. 이 더해진 필획은 문자의 음과 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예로,

『說文·玉部』“玉，石之美有五德者也。……。象三玉之連，丨其貫也。卣，古文玉。”

3) 飾筆은 고정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자에 따라 文飾, 裝飾筆劃, 羨劃, 贅筆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玉은 납작한 모양의 여러 개의 玉片을 가운데의 줄로 엮어놓은 모습의 상형문자이다. 이 문자가 후에 王자와 자형이 비슷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좌우(古文)나 우측 아랫부분에 점을 가해 구분하게 되었다. 이 점은 음·의가 없는 식필의 한 종류이다.

『說文·瓦部』“瓦，土器已燒之總名也。象形。”

瓦는 지붕의 여러 개의 기왓장이 연이어 맞물려 있는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이다. 가운데의 점 “·”은 의미 없이 문자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가해진 필획으로 비문자의 자소라 할 수 있다.

2.2 獨體 字素

『說文敘』에 “蓋依類象形故謂之文，後形聲相益即謂之字。”라 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형상에 의거하여 그림으로 그리거나 부호로 표시한 것을 文이라 하고, 후에 이를 바탕으로 형부와 형부, 형부와 성부가 결합된 것을 字라 한다.”는 말이다. 즉 도화문인 상형과 부호문인 지사는 文이 되고, 이들이 후에 결합하여 이루어진 회의와 형성은 字가 된다는 것이다. 宋朝의 鄭樵는 이를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여 “獨體爲文，合體爲字.”⁴⁾라 하였다. 즉 다른 어떠한 요소의 첨가 없이 단독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文이라 하고, 문과 문이 결합되어진 것을 字라 한다는 뜻이다.

본고에서의 독체의 개념도 이와 같다. 이러한 독체의 문이 자소로 쓰이는 것을 독체자소라 한다. 이 독체자소가 不成文 자소와는 달리 형·음·의 삼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보고 읽고 뜻을 새길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문자의 부수나 형부, 성부로만 사용되는 것을 비독립 독체자소라 한다.

본 논문의 조사에 의하면, 『說文』 540개 부수 중 비독립 독체자소는 약 120여개 정도로 전체의 1/5이 넘는다. 이 중 상당수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된다 해도 그 빈도수가 극히 미미하여 문자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

蘇新春은 『說文』 540개 부수의 屬部字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部首別 屬部字 數	部首 數	總比率(%)
0	36	6.7
1	156	28.8
2-4	184	34.1
5-9	56	10.4
10-49	61	11.3
50자 이상	47	8.7

4) [宋] 鄭樵 『通志·六書略』

5) 『漢語詞義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8. p.135 참조.

이에서 보면, 『說文』 540개 부수 안에는 부수 단독으로만 존재하고 이를 부수로 삼는 속부자가 없는 문자가 무려 36개, 1개의 속부자만이 있는 부수가 156개로 전체 부수의 1/3이 초과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문자나 부수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 빈도나 활용성에 있어서 이미 그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그중 독체이면서 비독립 자소이고 부수별 소속된 문자수가 0 - 5자(부수자 불포함)인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자 : 凵(坎, 감), 凵(거), 乇(託), 垂(垂), 录, 𠂇, 𠂇(癸)

1자 : 𠂇, 𠂇, 𠂇(도), 𠂇, 𠂇, 𠂇, 𠂇, 𠂇(고), 𠂇, 𠂇, 𠂇, 𠂇(예), 𠂇(이), 𠂇(꺾), 𠂇, 𠂇(은), 𠂇(畜), 𠂇(꺾)

2자 : 丨, 疋, 𠂇, 辛, 聿(聿), 几(수),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 𠂇(알), 𠂇, 𠂇, 𠂇

3자 : 𠂇, 𠂇, 𠂇, 𠂇, 𠂇(함), 𠂇, 𠂇, 𠂇(화), 𠂇, 𠂇, 𠂇(별)

4자 : 𠂇, 𠂇, 𠂇, 𠂇, 𠂇

5자 : 𠂇, 𠂇(치), 𠂇, 𠂇

등으로 약 70개의 부수가 있다. 이들은 상형과 지사의 독체자소이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용빈도 또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속부자가 6 - 9개인 비독립 독체자소는 ‘中, 𠂇, 𠂇, 𠂇(혜), 肉’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또 10개 이상의 문자에서 자소로 사용되어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비독립 독체자소는 아래의 17개이다.

彳, 支(女), 𠂇(歹), 𠂇, 𠂇(쇠), 𠂇, 𠂇

이 중 몇 개를 골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說文·彳部』“彳，小步也。象人脛三屬相連也。”

『說文』은 “小步”라 하고 사람의 大腿, 小腿, 발 세 부분이 연결된 모습이라 풀이하였다. 그러나 갑골문에 보면 行자의 오른 쪽 부분인 于부분을 생략한 생체상형이다.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行으로, 자소일 경우는 彳으로만 쓴다. 따라서 征, 後, 徐 등과 같아 彳을 자소로 갖는 문자는 모두 ‘行來’, ‘往來’의 뜻을 갖는다. 음은 丑亦切로 ‘척’이며, 이는 현재 한어병음 ‘chi’의 주음부호로 쓰인다.

『說文·支部』“支，小擊也。從又，卜聲。”

支(女)은 손(又)에 작대기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說文』에 “卜聲”이라 하여 형성

자로 본 것은 오류이다. 攴은 어떤 대상을 치거나 두드리고, 이를 통해 대상을 사역하기 위함을 표현하는 문자의 자소로만 쓰인다. 음은 普木切로 ‘복’이며, 해서체에서는 攴과 혼용되어 쓰인다.

『說文·虍部』“虍, 虎文也. 象形.”

虍는 호랑이의 무늬를 그린 것이라 풀이하였다. 그러나 이 문자는 虎자가 형부로 쓰일 때 자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虎자의 아랫부분 儿를 생략시킨 省形의 문자이다. 虍와 虎는 동음이다. 『說文·虍部』‘從虍’의 문자는 모두 ‘從虎省’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虍는 비독립 자소이다.

『說文·口部』“口, 回也. 象回市之形.”

口은 어떠한 공간을 둘러싼 모양을 나타낸다.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공간이나 예워 싸다는 의미의 자소로만 사용되며, 지금의 囿자로 대체되었다. 독음은 雨非切이다.

『說文·旃部』“旃, 旌旗之游旃蹇之兒. 從中曲而垂下旃相出入也.”

고문자에서의 旃은 깃대(方)에 깃발(人, 사람 人이 아님)이 나부끼는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이다. 따라서 旃을 자소로 갖는 문자는 모두 旗나 기의 모습, 종류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음은 於臆切로 ‘언’이다. 旃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소로만 사용되는 비독립 자소이다.

『說文·宀部』“宀, 交覆深屋也. 象形.”

宀은 경사진 지붕과 사방의 벽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인 집을 나타내는 상형문자이다. 독음은 武延切(면)이다. 후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집과 관련된 많은 문자의 자소로만 쓰인다. 문자의 머리 부분에 갓을 쓴 모양으로 위치하므로 흔히 ‘갓머리’라고 부른다.

『說文·网部』“网, 庖犧氏所結繩, 以田以漁也. 從宀, 下象网交文.”

网(망)은 그물을 그린 상형문자이다. 그물이나 그물과 관련된 모든 문자의 자소로만 사용된다. 그물의 의미는 후에 성부 亡을 가해 형성자 罔으로 쓰이다가 다시 재료인 糸을 가해 網자로 대체되었고,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說文·糸部』“糸, 細絲也. 象束絲之形.”

糸은 가는 실을 엮어놓은 모습의 상형문자이다. 실이나 실을 짜서 만든 천이나 옷감을 나타내는 문자의 자소로만 사용되고 단독으로 쓰일 경우는 유사한 의미의 絲자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絲자와 혼동되어 ‘실 사’라 하기도 하나 잘 못된 것이다. 독음은 莫狄切로 ‘떡’이다. 絲의 간체자로 쓰이기도 하나 絲와 糸은 다른 문자이다.

『說文·虫部』“虫, 一名蝮. 博三寸, 首大如擘指. 象其臥形.”

『說文』에 살무사와 같은 큰 뱀이라 풀이하였으나, 虫은 일반적으로 벌레의 머리와 긴 몸통, 꼬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모든 蟲類를 나타내는 문자의 자소로 쓰인다.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단독으로 쓸 경우는 형성자 虺로 대체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蟲자로 대체해 사용된다. 蟲과 혼동되어 ‘벌레 충’이라 읽기도 하지만 잘 못된 것이다. 독음은 許偉切로 ‘훤’라 읽으며 虺와 동음이다. 蟲의 간체자로 쓰이기도 하나 蟲과 虫은 다른 문자이다.

2.3 合體字素

합체자소는 앞에서 언급한 “獨體爲文, 合體爲字.”에서처럼 두 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된 것이다. 합체자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만, 『說文』 540개 부수 중에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문자의 자소로만 사용되는 비독립 합체자소는 아래와 같은 30개 정도이다.

艸, 𧈧, 皿, 𠄎(發), 辵(辵), 延, 𠄎, 言, 井, 𠄎, 臼, 𠄎, 𠄎, 受, 𠄎, 𠄎, 韋, 𠄎, 𠄎, 軛(乾), 秝, 疒, 疒, 幸(尼輒切 녍), 牽, 𠄎, 垚, 畀, 𠄎, 辨

이 중 몇 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說文·辵部』“辵, 乍行乍止也. 從辵止.”

辵(辵)은 ‘길을 걸어 가다’는 뜻으로 길을 나타내는 辵과 行來를 나타내는 止(之)의 합체문자이다. 그 의미가 行자로 대표되면서 독립적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왕래를 나타내는 문자의 자소로만 쓰인다. 독음은 丑略切로 ‘착’이라 읽으며, 비독립 합체자소이다.

『說文·井部』“井, 竦手也.”

井은 ‘두 손으로 받들다’이다. 이는 좌우 양손을 공손히 받드는 모습을 그린 합체자이다. 음은 居竦切(공)이다. 지금 이 의미는 共, 拱, 恭자 등으로 대체되었고, 井은 비독립 자소로만 쓰인다.

『說文·疒部』“疒, 倚也. 人有疾痛也. 象倚著之形.”

疒은 사람(人)이 침대(尸)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도화형 합체문자이다. 고문자에서 침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거나 다치고 병들어 아픈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문자는 질병과 관련된 모든 문자의 자소로 사용된다. 본래 음은 女庠切로 ‘녍’이나 후에 침대 牀(床)으로도 읽힌다.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질병을 나타내는 문자의 자소로만 쓰인다.

『說文·韋部』“韋, 相背也. 從舛, 口聲. 獸皮之韋, 可以束物. 枉戾相韋背.”

韋는 口(위)주위를 도는 두 개의 발 舛으로 구성되었으며,中间的 口는 성부도 되는 합체문자이다. 지금은 이 의미가 圍자로 대체되어 거의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소로만 쓰인다.

원래는 어떠한 지역을 돌며 ‘에위싸다’는 의미이나 후에 가족의 의미로 가차되어 가족 제품을 나타내는 문자의 자소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를 속부자의 수로 분류하면,

1자 : 延, 臼, 甕, 秝, 弼, 垚, 畷, 辨

2자 : 𠂇(發), 𠂇, 舛, 𠂇, 𠂇(乾)

3자 : 𠂇, 𠂇, 𠂇, 𠂇, 𠂇

4자 : 𠂇

5자 : 𠂇, 𠂇, 𠂇, 𠂇

6자 이상 : 艸, 𠂇(讠), 𠂇, 𠂇, 𠂇, 幸 이다.

2.4 變異 字素

변이자소는 독체자소와 합체자소에 나누어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논리 전개의 편리를 위해 별도의 節로 분리하였다. 이들은 원래는 독립 자소였으나 후에 書寫의 편리를 위해 자형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켜서 비독립 자소가 된 것으로 ‘變形字素’, ‘變體字素’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들로 다음 세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자형의 좌우상하 균형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 2) 필획수의 절감을 위해서
- 3) 다른 문자와의 자형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예로,

人 → 亻, 衣 → 衤, 火 → 灬, 水 → 氵(水), 手 → 扌, 心 → 忄(忄), 犬 → 犴, 示 → 礻, 阜 → 阝, 玉 → 王, 刀 → 刂, 肉 → 月, 長 → 長, 辵 → 辶, 邑 → 阝 등이다.

1) 좌우상하의 균형미

한자는 정사각형 형태의 문자이므로 좌우상하의 균형미를 중시한다. 좌우로 넓거나 상하로 길면 정방형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자형을 변형시키고 위치를 바꾸어 균형의 미를 추구한다. 예로,

火 → 灬

火는 회의나 형성문자와 같이 합체자와 결합할 경우 좌우에 위치하면 자형이 넓어지므로 火의 네 획을 네 개의 점 灬로 변형시켜 하단에 위치하게 하여 자형의 균형미를 맞춘다.

心 → 忄(忄)

心 역시 합체자와 결합하여 좌측에 위치하면 자형이 넓어 균형미가 맞지 않으므로 心(忄)

자형으로 아랫부분에 놓거나 丩 으로 변형시켜 좌측에 놓는다.

2) 필획수의 절감

한자는 표의와 표음을 기능을 동시에 가진 義音문자라는 기능적 장점이 있으나 반면, 형부와 형부, 형부와 성부를 결합시킨 합체자가 다수이므로 필획이 많고 복잡하다는 구조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 필획을 생략해 간화시키면서 자체가 비독립 자소가 된 것도 있다.

阜 → 阝

고문자에 나타나는 阜는 언덕을 오르기 편하도록 파놓은 계단을 그린 것이다. 후에 이 문자가 지형이나 지세를 나타내는 문자의 좌측 편방 자소로 사용되면서 阜의 필획을 간화시켜 阝 로 변형시켜 사용되면서 비독립 독체자소가 되었다.

邑 → 阡

邑은 영토를 나타내는 阡과 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회의의 합체자이다. 후에 邑자는 문자의 우측에서 지명이나 국명을 나타내는 자소로 사용되면서 자형이 阡 으로 간략화되면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독립 합체자소가 되었다.

3) 자형상 혼동

자형이 유사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변형시켜 비독립 자소가 된 예도 있다.

玉 → 王

옥은 원래 王이고, 임금 왕은 원래 玉으로 三획간의 거리에 차이가 있었다. 후에 서사상 그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옥자와 왕자의 구별이 불분명해지자 옥의 右下에 점을 가해 구분하였다. 이에 의해 옥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玉, 자소로 쓰일 때는 王이라 써서 자형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독립 독체자소가 되었다.

3. 非獨立 字素의 발생 원인

이와 같이 비독립 자소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不成文을 제외한 대부분은 형·음·의를 가진 독립적인 문자로 탄생이 되었다. 그러나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독립 자소로 변하게 되었다. 그 발생 원인을『說文』 540부수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석·정리해 보기로 한다.

1) 不成文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不成文의 도화나 부호는 원래 자체가 비문자이므로 독립적 사용이 불가하다.⁶⁾

2) 通段

이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이 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로 의미가 가차되어 가고 본래 문자는 비독립 자소로만 쓰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로,

艸(艸)는 풀이 돋아난 모습을 그린 것으로 ‘풀 초’의 원래 문자이다. 후에 동음의 草자로 의미가 가차되어 독립 문자일 경우는 草로, 자소인 경우는 艸로 기능이 분화되게 되었다. 『說文·艸部』에 “草, 草斗, 櫟實也. 一曰象斗.”라 하였다. 草斗란 상수리나무의 열매로 도토리과 비슷하다. 그래서 “一曰象斗” 즉 ‘櫟斗(도토리)’라 하였다. 草의 본의는 상수리 열매이나 艸의 의미가 통가되어 사용되고, 艸는 식물과 관련된 문자의 비독립 자소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로는,

艸 → 莽, 采 → 辨, 夨 → 癸, 夨 → 引, 疋 → 雅, 犇 → 泥, 犇(개) → 介,
 𠂔 → 可, 毛 → 託(托), 軌 → 乾, 梟 → 梟, 厶 → 私, 𠂔 → 澹, 丿 → 撇,
 匚 → 方, 女 → 突 등이 있다.

3) 同義 문자로 대체

본래의 문자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문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자신은 다른 문자의 비독립 자소로만 남게 된 예이다.

『說文·丨部』 “丨, 上下通也. 引而上行讀若函, 引而下行讀若退.”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丨은 ‘상하로 관통하다’는 의미와 ‘아래에서 위로 향하다’는 의미, ‘위에서 아래로 향하다’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후에 이 문자는 비독립 자소가 되었고, 이에 관통한다는 경우는 ‘뚫을 卍(貫)’으로, 위로 향할 경우는 ‘나아갈 函(進)’으로, 아래로 향할 경우는 ‘물러날 退’로 음과 의과 관련한 문자로 대체되어 쓰이게 되었다.

彳(행의 생체 상형)과 辵은 모두 ‘길’이나 ‘길을 가다’는 뜻의 문자이다. 후에 이들은 모두 음은 무관하지만 같은 語源을 가진 사거리를 나타내는 行자로 대체되었고, 자신은 길이나 왕래를 나타내는 문자의 비독립 자소로만 쓰이게 되었다.

이에는 동음의 연관성에 따라 관련한 것과 무관한 것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① 동음이나 근음의 독음상 상호 연관성이 있어 同源字⁷⁾ 관계를 갖고 대체된 것을 말한다. 예로,

卍 → 謹, 諳 → 競, 犇 → 糞, 卍 → 骨, 厶 → 合, 𠂔 → 巷, 冂(冂) → 冒, 儿 → 人,

6) 이 항목은 『說文』 540부수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비독립 자소의 한 유형이므로 같이 열거하였다.

7) “同源字란 비교적 포괄적인 어떤 한 범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하면서, 동시에 독음이 같거나 근사한 문자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진광호, “‘舍’ 同源字 探索”, 『중국어학』, 제38집, 대한중국어학회, 2011.04, p.2.

矢 → 仄 등이 있다.

② 독음상 아무 연관성이 없이 단순히 동의의 문자로 대체된 것이다. 예로,
 屮 → 草, 受 → 受, 歹 → 死, 旃 → 旗, 宀(厂, 广) → 家, 疒 → 病, 彡 → 毛,
 囟 → 腦, 糸 → 絲, 虫 → 蟲 등이 있다.

4) 後起字로 대체

이는 본래의 문자가 後起 형성자나 이체자로 의미가 대체되어 쓰이고, 자신은 다른 문자의 비독립 자소로만 남게 된 것이다.

支(攴)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치다’, ‘두드리다’는 뜻이다. 후에 이 문자의 의미는 동작을 나타내는 형부 扌(手)와 攴의 성부 가차자인 卜이 합해진 후기 형성문자 扌자로 대체되어 쓰이게 되었고, 자신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들의 비독립 자소로만 남게 되었다. 예로 는,

凵 → 坎, 乚 → 糾, 井 → 共(恭, 拱), ナ → 左, 攴 → 攀, 馭 → 賢, 凵(거) → 盍,
 冂 → 垆, 厚 → 厚, 宀 → 廩, 口(韋) → 圍, 垂 → 垂, 𠂔 → 花, 弓 → 函, 录 → 錄,
 未 → 菽, 网 → 罔(網), 宀 → 蔽, 匕 → 化, 月 → 殷, 先 → 簪, 勺 → 包, 囟 → 窗(窓),
 𠂔 → 剛, 辰 → 派, 冫 → 冰, 廾 → 迅, 凵(알) → 馵, 厂 → 拽, 丩(꺾) → 鉞, 琴 → 琴,
 凵 → 隱, 弓 → 彊, 虫 → 虺, 尪 → 堯, 畺 → 疆, 㙜 → 堆, 隹 → 隧, 厽 → 壘,
 辵 → 綴, 辯 → 辯 등이 있다.

5) 字形의 변형

이는 원래는 독립 자소였으나 자소로 사용되면서 자형의 균형이나 필획의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형을 변형시키면서 변형된 자소가 비독립 자소가 되어버린 예를 말한다. 위에 언급한 변형 자소가 이에 해당한다.

人 → 亻, 衣 → 衤, 火 → 灬, 歹 → 殳, 水 → 氵(氷), 手 → 扌, 心 → 忄(忄), 犬 → 犴,
 示 → 礻, 阜 → 阝, 玉 → 王, 刀 → 刂, 肉 → 月, 長 → 長, 辵 → 辵, 邑 → 阝 등이 있다.

6) 釋形之誤

이는『說文』이 자형을 잘못 해석하여 원래 비문자인 것을 문자로 오인하였거나, 같은 문자를 다른 문자로 오인해서 별도로 수록하면서 생긴 것을 말한다. 예로『說文·虎部』에 “虎, 虎文也. 象形.”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호랑이의 상형문자인 虎자에서 밑의 儿부분을 생략한 문자로 “從虎”의 문자는 “從虎省”⁸⁾이라 해야 하며, 虎와 虎는 동일한 문자로 보아야 한다. 예로,

8) 葉昌熾 『說文部首訂』 “虎當云從虎省.” 『說文詁林』 권4, p.1348.

辛 → 𠂔, 聿 → 聿, 叀 → 專, 𦍋 → 羊, 鹵 → 鹵, 叒 → 若, 兩 → 兩, 𠂔 → 𠂔,
 𠂔 → 𠂔 등이 있다.

7) 기타

이는 위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고 사용 예도 거의 없어 일부 문자의 자소 외에는 독립 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사라져버린 문자들이다. 예로,

ㄱ, 攴(쇠), 攴(치), 禾, 秝, 兩, 𠂔, 𠂔, 𠂔, 𠂔, 𠂔(이) 등이 있다.

4. 結 言

이와 같이 『說文解字』 540부수에서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등 字書와 詞書의 어휘 수록 여부를 중심으로 비독립 자소를 찾아보았고, 이들의 유형과 비독립 자소가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說文』 540부수 중 비독립 자소는 독체자소와 합체자소를 합해 약 120여개로 전체 22% 이상의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비독립 자소의 속부자 측면에서 보면, 0 - 5 이하의 속부자를 갖고 있는 자소가 90개 이상으로 전체의 3/4이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비독립 자소가 “문자는 사회의 기록이며 교제의 도구이다.”⁹⁾ 라고 하는 문자 고유의 기록, 전달, 교제라는 기본 기능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속부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 또한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언급했던 “分類部居, 不相襍廁也.”라는 부수 분류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비독립 자소는 후대 字書의 부수 개혁에 일차적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 자서에서 통용되는 214부수에서도 상당 부분 제외되었거나 다른 부수로 散入되었다.

비독립 자소의 발생과 원인을 보면, 고문헌에서 흔히 보이는 통가 현상에 의한 것, 동의자로 대체된 것, 가차 현상에 의한 후기 형성자로의 대체나 筆寫의 차이에 의한 이체자로 대체된 것, 필사의 편의나 균형미 등을 추구하기 위해 자형을 변형시킨 것, 그리고 자형 해석의 오류 등 다양한 이유와 원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원래의 독립 자소는 사용빈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비독립 자소가 되었다. 대부분은 자소로서의 기능만 남고 문자로서의 기능과 가치는 상실하게 되었고, 일부의 문자는 역사 속으로 아주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문자학에서 흔히 形·음·의 삼 요소를 갖춘 것을 문자라 칭한다. 하지만 이 삼요소를 갖추었다고 해서 독립 자소와 비독립 자소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무비판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문자라 명명할 수 있을 지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비록 『說文解字』와 같은 字典이나 여러 韻書에 독립된 문자로 수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대의 문헌에 사용된 예가 미미하고 사

9) 王鳳陽, 『漢字學』, 吉林文史出版社, p.21 참조.

획의 구성에 독립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록과 전달, 교제라는 문자 고유의 기능은 이미 상당 부분 상실된 것이며, 이는 단지 통계에만 참여하고 기록상에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許 慎,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초판), 漢京, 1980.03.
顧野王, 『玉篇』, 國字整理小組(臺灣版).
陳彭年 等, 『宋本廣韻』(4版),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09.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鼎文書局, 1977.
『新修康熙字典』(재판), 啓業書局, 1979.1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5版), 中華學術院, 1980.09.
『辭源』, 商務印書館, 北京. 1990.07.
徐中舒主編, 『甲骨文字典』1版 四川辭書出版社 1988.11.
裘錫圭, 『文字學概要』(再版), 商務印書館, 1990.04.
詹鄞鑫, 『漢字說略』(初版), 遼寧教育出版社, 1991.
王鳳陽, 『漢字學』, 吉林文史出版社, 1992.11.
『中韓大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진광호, 『文字學概論』, 도서출판 민족문화, 1997.12.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1版), 學林出版社, 1998.01.
박추현, 『漢字字素論』,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6.10.
蘇新春, 『漢語詞義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8.08.
공재석, 『漢字字素論』, 『동양학』, 제15집, 단국대학교, 1985.
李 圃, 『字素理論及在漢字分析中的應用』, 『學術研究』, 2000.01.
진광호, 『“歺”同源字 探索』, 『중국학』, 제138집, 대한중국학회, 2011.04
陳永生, 『從字素視角探求漢字性質芻議』, 『同濟大學學報』, 第2卷 4期. 2011.0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非獨立, 字素, 文, 字, 不成文, 獨體, 合體		
	영문	Non independence, character element, text, word, unwritten, independent body		
<p>Analysis of non independent word types and causes of pigment</p> <p style="text-align: right;">Jin, Kwang-Ho</p> <p>Basically, the three elements of form, sound and meaning are called words. This text has used independently, but not all words can be used independently, some words can be used, to other word combination, become grapheme to use such words called "non independent words".</p> <p>For example, Mian(ㄹ), Mi(糸), Chi(彳) and other purposes. In this paper, "540" is included in 『ShuoWenJieZi』 radical into text as the object, according to the text in " can be used alone for non independent character elements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shape can be divided into "single morpheme" and "characters in", and these words from the independent the word into non independent word element process in-depth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on independent grapheme replaced into why what kind of form, there will be such a phenomenon, which is divided into "unwritten", "common", "synonymous words", "after the word", "shape deformation," release form "error", "other" 7 species type, and discusses these words as a literal value and phas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진광호 / 秦光豪 / Jin, Kwang-Ho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학부		
	Em@il	jkh@bufs.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4월 25일	심 사 일	2017년 06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6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29일